

of Performance." Ph.D. Thesis.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2013.

Young, C. R. "The Denominational Hymnal and The Crisis in Congregational Song" *Choral Journal* 9/5 (1969): 24-27.

## 구약학

### 구약과 다문화가정

The Old Testament and Multi-Cultural Family

신득일

고신대 (신학과 교수)

### 목차

1. 서언 | 155
2. 본론 | 156
  - 2.1. 이주자에 대한 구약의 용어와 정의 | 156
  - 2.2. 이주자의 법적인 보호 | 159
  - 2.3. 이주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 | 162
  - 2.4. 이주자의 종교적 위치 | 165
  - 2.5. 이주자의 가정과 결혼 | 167
  - 2.6. 이주자의 미래 | 169
3. 결론(요약) | 171

## 요약

## 구약과 다문화가정

구약에서 다문화 가정에 속한 이주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토인과 분명히 구분된다. 그것은 이주자가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생활과 결혼 그리고 종교생활에서 본토인과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토인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느 정도로 동화되느냐에 달렸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The Old Testament and Multi-Cultural Family*

## 주요어

다문화가정, 이주자, 본토인, 거류민, 언약

**Abstract****The Old Testament and Multi-Cultural Family**

Prof. Dr. Deuk-il Shin

In the Old Testament, migrants belonging to multi-cultural families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mainlanders in many aspects. It is seen in the fact that migrants are the social weaknesses of Israel and are the object of protection. However, despite their discrimination with their natives in social, marriage and religious life, how they enjoyed the same benefits as their natives depend on how much they are assimilated to the Israelite community. It is to accept the covenant made between Yahweh and Israel.

**Keywords** |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native, sojourner, covenant

**1. 서언**

다문화(multi-culture)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특정집단을 규정하는 말로 쓰인다. 만일 한 가정이 두 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면 ‘다문화 가정’(multi-cultural family)이라고 하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를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라고 규정한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한국이 인종과 언어 그리고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닌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통념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급증하는 외국인 이주자로 말미암아 ‘단일민족’이란 표현이 어색하게 여겨질 정도다. 현재 해외 이주민의 수가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sup>1)</sup>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리고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교회나 기독교 기관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고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가운데서도 옛 언약시대에 이주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이 주는 이주자에 대한 교훈에 치중할 것이다. 여기서는 구약 전체에 나타난 이주자에 대해서 연구하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율법과 사회와 관련해서 이주자에 대한 교훈을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주자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주자이기에 그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 논문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족장이나 민족 또는 개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대했는가를 다루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문화 사회와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대했는가를 연구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구약에 나타난

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년 6월호), 13. 2019년 6월까지 정확한 이주자 수는 2,416,503명이다.

이주자에 대한 규정과 실례를 영역별로 나누어서 본문을 주석함으로써 구약에서 말하는 다문화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이주자에 대한 구약의 용어와 정의

#### 2.1.1. ‘게르’

구약은 다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주자로서 가장 빈번하게 쓰인 말이 개역개정판에서 ‘객’이나 ‘나그네’ 또는 (함께 거하는) ‘타국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르’(*gēr*)이다(창 15:13; 출 2:22; 12:48; 18:3; 22:20; 23:9; 롬 19:34, 34; 신 10:19; 23:8; 갤 47:22). ‘게르’는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구르’(*gūr*)의 전성명사로서,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본토인’ 또는 ‘내국인’을 의미하는 ‘에즈라흐’(*'ezrah*)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였다(출 12:48-49; 갤 47:22).<sup>2)</sup> ‘게르’는 기본적으로 “전쟁(삼하 4:3)이나 기근(룻 1:1) 혹은 전염병 또는 피흘린 죄 등으로 인하여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성읍이나 지파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은신처나 거주지를 찾은 사람이다.”<sup>3)</sup> 이들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본국인과 결혼도하고 사유재산을 소유면서 보호를 받는 정착주민이 된 나그네들이다.

2) L. Koehler, W. Baumgartner, M. E. J. Richardson and J.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99) 185; David J. A. Cline,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2*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Sheffield Phoenix Press, 1993 - 2011), 2, 372.  
3) HALOT, 201.

성경은 족장의 거주(창 23:4), 모세의 미디안 거주(출 2:22; 18:3)를 ‘게르’라고 하고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도 ‘게르’의 복수인 ‘게림’(*gērim*)이라고 한다(창 15:13; 출 22:20; 23:9; 신 20:19; 23:9).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는 주인과 객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인’이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원주민이 ‘게르’가 되었다(대상 22:2; 대하 2:16-17; 8:7-10). 이 점을 고려한다면 드 보(de Vaux)는 왕국시대 끝에 ‘게림’이 유다에 많이 증가했다고 하지만<sup>4)</sup>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 많은 ‘게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입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자기 기업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게르’로 불렸다. 사사시대에 원래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서 기브아에 사는 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삿 19:16). 그렇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주자는 족장이나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연구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율법으로 정하는 ‘게르’는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에게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르’는 단순히 거주자를 의미하는 ‘요쉐브’(*yōšeb*)과는 구분된다.

#### 2.1.2. ‘토샤브’

‘토샤브’는 ‘앉다’ 또는 ‘거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샤브’(*yasab*)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거주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토샤브’는 ‘게르’와 비슷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게르)요, 거류하는 자(토샤브)”라는 데서 나타난다(창 23:4). 그렇지만 그들은 ‘게르’보다 더 적은 권한을 갖는다(출 12:45; 롬 22:10). 이것은 ‘토샤브’가 ‘게르’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동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샤브’는 이스라엘 영토에 사는 비이스라엘인 거주자로서 완전한 시민의 권리와

4) R.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New York, Toronto, London: McGraw-Hill, 1961), 75.

않은 시민이다. 이들은 ‘게르’와 다음 분류에서 소개된 ‘노크리’(*nōkri*, 타국인)의 중간 단계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가나안 원주민 출신으로서 한 지역의 거주민이 된 자도 있다.<sup>5)</sup>

### 2.1.3. ‘노크리’

‘노크리’(*nōkri*)는 개역개정판에 ‘객’이나 ‘타국인’ 또는 ‘이방인’이나 ‘나그네’ 등으로 번역되었다.<sup>6)</sup> ‘노크리’라는 말이 유사한 동종어인 아카드어 ‘나크룸’(*nakrum*)이 형용사로는 ‘외국의’ 또는 ‘이방의’란 의미로 쓰이지만 명사로는 친구의 반대말인 ‘대적’이나 ‘원수’를 의미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 공동체에서 좀 더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이주민을 뜻한다.<sup>7)</sup> ‘노크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을 가리킨다. 그래서 점령당하기 전의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삿 19:12). 룻은 스스로 자신을 ‘노크리야’(*nōkriyyā*, 노크리의 여성)라고 부른 것은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룻 2:10). 가드 사람 잇대도 ‘노크리’로 분류된다(삼하 15:19). 솔로몬이 성전봉헌시 기도할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노크리’에 해당한다(왕상 8:41).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습을 지닌 이방인이다(사 2:6).

‘노크리’와 관련된 ‘네카르’(*nekār*)이라는 추상명사는 다양한 명사와 결합하여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즉 ‘아드마트 네카

5) HALOT, 1712.

6) 출 2:22; 18:3; 신 14:21; 15:3; 17:15; 23:21; 29:21; 삿 19:12; 삼하 15:19; 왕상 8:41, 43; 11:1, 8; 사 2:6; 음 11; 습 1:8; 룻 2:10; 애 5:2; 스 10:2, 10-11, 14, 17-18, 44; 느 13:26-27. R. Martin-Achard, “*נָכַר*,” in Jenni, E. und C. Westermann (ed.), *Theologische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 (München: Chr. Kaiser, 1976), 67-68.

7) Cf. Miguel Civil, A. Leo Oppenheim, Erica Reiner (ed.), *The Assyrian Dictionary*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89.

르’(*admat nekār*)는 ‘이방의 땅’(시 137:4), ‘엘 네카르’(*ēl nekār*)는 ‘이방신’(신 32:12; 말 2:11; 시 81:10), ‘엘로헤 네카르’(*ēlohe nekār*)는 ‘이방 신들’이다(창 35:2, 4; 신 31:16; 수 24:20, 23; 삿 10:16; 삼상 7:3; 렘 5:19), ‘벤-네카르’(*ben-nekār*)는 ‘이방 사람’이다(창 17:12, 27; 출 12:43; 레 22:25; 사 56:3). ‘노크리’가 유대공동체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질성을 나타낸다고 할 때 요세푸스가 외국 이주자를 두 종류로 나눌 때 그 공동체의 이념을 공유하지 않고 생활방식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sup>8)</sup>

### 2.2. 이주자의 법적인 보호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주민들(게림)은 자유인이지 노예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외국태생으로서 완전한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시민들과는 달랐다. 모든 부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본토인의 호혜에 의존하는 품꾼으로 전락했다(신 24:14). 그들은 대체로 가난 했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분류되었다.<sup>9)</sup> 이스라엘 법은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게르’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는 율법의 기본이자 핵심인 십계명과 소위 ‘언약서’<sup>10)</sup>와 ‘성결법’<sup>11)</sup>

8) *Against Apion* 2. 210, in Flavius Josephus and William Whiston, *The Works of Josephus: Complete and Unabridged* (Peabody: Hendrickson, 1987); “따라서 우리의 입법자는 우리의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관습을 따라 사는 자들에까지 이르는 참된 연합을 우호적으로 존중함으로써 우리의 율법을 준수하려는 생각을 가진 모든 자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와 맷은 교류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찌다 우리에게 온 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9) De Vaux, *Ancient Israel*, 74-75.

10) ‘언약서’는 출애굽기 24:8에 나오는 표현으로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비평가들은 십계명 이후의 출애굽기 20:22 - 23:33의 규정을 ‘언약서’라고 한다.

11) 비평가들은 레위기 17-26장은 원래 따로 존재하는 성결법(H)이었다고 한다. ‘성결법’

그리고 신명기 법전에 언급되었다.

십계명에서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을 언급하고 있다(출 20:10; 신 5:14). 여기서 ‘객’은 ‘게르’를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인간사회에 적용된 안식일 제도가 ‘게르’가 가지는 권리의 일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대근동에서 이주자들에게는 별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율법은 특별히 민감하게 이들의 필요와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sup>12)</sup> 여기서는 다만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할 뿐이지 어떤 종교적인 관행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축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도록 명했기 때문이다.

‘언약서’에서는 ‘게르’의 보호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출 22:20; cf. 23:9).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자들이 부당하게 착취나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다. 문법적으로 이 금지명령(출 22:20)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 금지’(divine prohibition)로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sup>13)</sup> 여기서 ‘압제하다’(yānâ)와 ‘학대하다’(lahas)는 각각 감정적인 학대와 착취를 의미한다.<sup>14)</sup>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었다. 이 ‘게르’에 대한 학대와 착취 금지법의 근거는 한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똑같이 ‘게림’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금지법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이른바 ‘성결법’에서는 ‘게르’에 대한 금지명령과 함께 긍정적인 명령을

이란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Klostermann은 이 법전이 에스겔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관련성은 그 전에 Graf를 통하여 제시되었다. 그는 에스겔이 성결법의 대부분(례 18-23; 25, 26)의 저자라고 한다(Karl Heinrich Graf, *Die geschichtli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Leipzig, 1866, 81.). 그러나 그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성결법과 에스겔 선지자와의 관계를 연구했지만 일치된 견해는 없다.

12) Nahum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113.

13) 신독일, 『구약히브리어』(서울: CLC, 2012), § 40 d.

14) Sarna, *Exodus*, 138.

담고 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3-34). ‘게르’를 압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본토인과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고 한다. 이 사랑의 법의 동기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게림’으로 살았다는 것에 호소하면서 본토인과 이주민 간의 공통된 인간적 연대를 강조한다. 더 나아가 농지가 없는 이들의 기초생활을 위해서 밭의 곡식과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레 19:9-10; 23:22).

신명기법은 앞 선 법의 연장선에서 ‘게르’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권이다. ‘게르’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었지만 그것은 율법조항 이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어진 것이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6:18b-19).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이주민에게 실천해야 했다. 또한 ‘게르’는 레위인과 같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고 또 다 베지 못한 곡식을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로 제시되었다(신 14:29; 24:19). 이주자와 같이 가난한 자들이 밭에서 곡식을 줍는 관행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sup>15)</sup> 하나님은 이런 사회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도록

15)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229: “고대 이집트에도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는 약간의 증거가 있다. 일부 관행은 이스라엘 땅의 아랍 농부들 가운데 현대에도 남아 있다.”

하셨다. 하나님은 ‘게르’의 경제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스라엘 시민이 삼 년마다 십일조를 따로 내게 하여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나누도록 들보셨다(신 26:12). 또한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24:17a). 이 본문의 번역은 “이주자의 정의(*mušpāt*)를 왜곡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sup>16)</sup> 이 명령도 절대금지법으로서 법적인 정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주자의 송사를 시민권자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기에 언급된 이 모든 명령은 ‘게르’의 복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이다. 더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피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된 도파성도 이들에게 열려있었다(민 35:15).

이주자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조치와 혜택은 ‘게르’와 ‘토샤브’에 해당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토샤브’는 ‘게르’와 같이 완전히 자유화된 이스라엘 시민과 같다.<sup>17)</sup> 그러나 ‘노크리’에게는 법적인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신 15:3; 23:21). 그런데 ‘노크리’로 표현된 롯의 경우는 그녀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된 시민이기 때문에 ‘게르’나 다름없는 자로 보아야 한다.

### 2.3. 이주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

이주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회에 동화된 ‘게르’와 ‘토샤브’는 그 공동체에서 단순히 생계와 복지를 위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본토 시민과 같은 사회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국적을 가지지 않았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도 할 수 있었고(삼하 1:13), 재산을

16) HALOT, 693.

17) Diether Kellermann, “**תָּשׁׂׂרִים**,”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7), 448.

소유하고 이스라엘 시민을 종으로 거느릴 수도 있었다(레 25:47). 이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도 있었다.

출애굽과 사사시대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갈렙은 그나스 족에 속한 사람으로서 일찍 유다지파에 배속된 사람으로 보인다.<sup>18)</sup>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자였고 헤브론을 정복한 믿음의 용사였다(민 14:6-9; 수 15:13-14; 삫 1:10). 그의 아우 옷니엘도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드빌을 정복하는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첫 사사로서 메소포타미아의 침략자 구산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공을 세웠다(수 15:17; 삫 1:13; 3:10). 삼갈(*šamgar*)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고 누주문서에 나타난 후리안 이름으로 보인다. 그의 신분은 ‘아낫의 아들’인데 즉 바알의 배우자이자 전쟁의 신인 아낫을 숭배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가 단순히 하비루 출신의 이집트 바로의 용병인지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개종한 외국인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의 역할을 한 타국인이었다.<sup>19)</sup> 이 모세와 함께 온 겐 족속들 가운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사사는 아니지만

18) De Vaux, *Ancient Israel*, 6: “갈렙은 그나스족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민 32:12; 수 14:6, 14; 창 15:19; 36:11).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에 정주할 때부터 이스라엘과 접촉했다. 그곳은 갈렙이 정탐을 위해서 유다의 대표로 거명되었다. 그들이 이 지파에 통합된 것은 여호수아 15:13(14:6-15)과 마지막에 갈렙이 유다의 계보에 첨부된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은 헤스론의 아들, 데페스의 아들, 유다의 아들이 되고(대상 2:9, 18, 24), 여라모엘의 형제가 되었다(대상 2:9).” 밀그롬은 ‘그나스 족속’의 기원을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손에서 찾는다(창 36:11, 15, 42); Jacob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391. 그렇게 되면 창세기 15:19에 언급된 ‘그나스족속’에 대한 설명이 모호해진다. 사실 그나스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합류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 블록은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것이 삼갈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의 영웅적인 행위가 이스라엘에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 Daniel I. Block, *Judges, Ruth*, vol. 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174; cf. Robert G. Boling, “*Shamgar (Person)*,” ed. David Noel Freedman,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1992), 1156.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바らく보다도 더 큰 영예를 얻었다(삿 4:11, 18-21; 5:6). 사사시대에 모압 여인 룸은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이주자로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회에 받아들여져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계를 이어갔다(룻 4).

다윗은 많은 ‘게림’을 보호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용했다(대상 22:2). 그들 가운데 돌을 깎는 석수와 현장감독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땅에 ‘게림’이 십오만 삼천 육백 명이었다고 솔로몬은 회상한다(대하 2:17-18, 한글). 왕정시대에는 이주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엘리트 군인으로 활동한 예도 있다. 우리야는 헷 사람으로 소개 되었지만 (삼하 23:39; 대상 11:41) ‘헷 사람’이라는 것이 그가 이주자나 외국인이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sup>20)</sup> 아마도 이주한 조상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에 잘 동화된 다문화가정의 일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는 뱃세바의 남편으로서 하나님과 왕과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사악한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은 자로 잘 알려져 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삼하 11:11). 그는 이주자의 자손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화되었다고 봐야 한다.

다윗 시대에 가드 사람 잇대는 ‘노크리’로 분류된다(삼하 15:19). 그는 가드에서 용병 육백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망명 온 군사지도자였다.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암살롬의 반란으로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자 잇대가 새로운 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잇대는 다윗의 권고를 거절하고 다윗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삼하 15:21). 잇대와 그의 용병들은 다윗의 신임을 얻어서 암살롬과 치루는 전쟁을 담당한 세 부대 중에 하나가

20) P. McCarter, *II Samuel*, AB (Garden City, N.Y.: Doubleday, 1984), 285.

되는 특권을 누렸다(삼하 18:2). 그러나 잇대와 그의 용병들은 다윗의 개인부대 중에 속해 있었을 뿐이다.<sup>21)</sup> 다윗이 복귀한 후에도 그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이주자에 해당하는 ‘게르’와 ‘토샤브’는 법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회생활에서 이스라엘 시민과 비교적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누린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은 순혈주의가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명기의 왕의 규례는 ‘타국인’(노크리)이 왕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노크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형제 가운데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신 17:15). 만일 ‘게르’가 왕이 된다면 그것은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으로 봐야 할 것이다(신 28:43).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이주민의 지위와 권한에 언약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그것도 무제한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가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한 것은 이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사랑이 그 공동체 내에서 실현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 2.4. 이주자의 종교적 위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시민권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게르’는 ‘총회’(*qahal*)의 일원이 될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sup>22)</sup> 조건부로 애돔과 애굽사람은 삼대 후에 총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23:3-8). 그래도 ‘게르’는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출 20:10; 신 5:14), 또 이스라엘 절기에 참여할

21)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22) Diether Kellermann, “‘ゲル’,” in TDOT, 444.

수 있도록 되어있다(신 16:11, 14). 특별히 본토인과 동일한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민 9:14). 그러나 유월절에 이례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교물을 먹으면 타국인도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출 12:19). 이때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규례를 따라서 먹을 수 있지만 ‘토샤브’는 제외된다(출 12:43-45).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는 이주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것 같다. “너희는 이례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례 23:42).

레위기의 제사규례에서는 ‘게르’에 대한 언급이 없다(례 1-7). 여기서 ‘게르’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몇 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게르’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참여를 허용한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번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고(례 17:8), 서원제와 낙현제로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다(례 22:18). 또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개종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죄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민 15:14-16, 26, 29-30).<sup>23)</sup> 그들은 속죄일에 참여하여 죄를 속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례 16:29).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innā nefes*)란 말은 숙어로서 항상 금식을 의미한다.<sup>24)</sup>

‘게르’는 각종 정결법에 나타난 금지법에서 본토인과 같다.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례 17:10, 12, 13)이나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부정한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는 정결법은 본토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례 17:15-16).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같은 여러 가지 정결법도 이스라엘과 ‘게르’에게 동시에 적용된다(례 18:26). 또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가증한 행위도 금지되었다(례 20:2).

## 2.5. 이주자의 가정과 결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었다(출 34:15-16; 신 7:3-4). 이 본문들에 언급된 상대는 가나안 부족들이다. 그렇지만 결혼금지 상대는 가나안 부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면 배우자가 비록 이주자라고 할지라도 그/그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약에는 이주자와 결혼한 여러 경우를 들고 있다.

### 2.5.1. 궁정적인 결혼 사례

이 경우는 먼저 모세가 미디안 여인 삽보라와 결혼한 것을 들 수 있다. 비록 미리암과 아론이 그의 결혼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으셨다(민 12:1-8).<sup>25)</sup> 미리암은 모세가 지나쳐버린 둘째 아들 (*bēn*, 단수형태)의 할례를 시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실행했던 것이다(출 4:24-26).

모압여인 룻이 말론과 결혼한 것은 그녀가 언약의 가정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오미가 이 결혼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언약에 불충한 면모를 드러낸다. 그런 가정에서 룻이 여호와 신앙에

23) Diether Kellermann, “גֶּר,” in *TDOT*, 447.

24) Baruch A. Levine,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09.

25) 구스를 에티오피아로 보고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집트 중왕국 시대 12왕조(주전 18-19세기) 의 저주문헌에는 구스족이 아시아 지역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구스족속의 통치자”). Cf. 신득일, 『광야의 반란』, (서울: CLC, 2015), 106-107.

대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sup>26)</sup>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련해두신 구원의 법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룻이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노크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게 되는 복을 누렸다.

왕국시대에 다윗의 아내 가운데 갈렙 족속의 여인 아비가일도 있고, 아람 그술 왕 달매 딸 마아가도 있었다(삼하 3:3).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한 것은 다윗을 흘대한 나발이 죽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예언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삼상 25:26). 다윗과 마아가의 결혼은 외교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삼하 2:9) 그녀가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니고 신정왕국의 왕의 왕비로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 같다. 여자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뱃세바와 헷 사람 우리야의 경우다. 우리야는 이미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으로 나타났다(삼하 11:11).

### 2.5.2. 부정적인 결혼 사례

솔로몬은 여러 이방인 후궁을 거느리면서 철저하게 왕의 규례를 어겼다(신 17:17). 그들 가운데는 애굽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암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도 있었다(왕상 11:1). 물론 일부다처는 문제가 되겠지만 솔로몬이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왕상 11:4-8). 이 솔로몬의 죄가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된다(왕상 11:13).

아합이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에 치명적이다. 옛바알의

26) Cf. 신득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약본문 해석과 적용: 룻기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0(4), (2015) 117-134.

딸 이세벨이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녀가 철저한 바알숭배자였기 때문이다.<sup>27)</sup> 문제는 이스라엘 왕의 왕후가 된 이세벨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합이 개종한 것이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자가 된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바알숭배 정책을 꾀했다(왕상 16:31-33). 아합의 잘못된 결혼으로 이스라엘에 최악의 배교시대가 도래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공동체에서 단행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가운데 이방여인과 결혼한 것이 주요문제가 되었다. 제사장들(스 10:18 - 22), 레위인들(10:23 - 24)과 시민들(10:25 - 43)이 이방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후기의 유대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결혼문제를 이교도와 결혼했다고 혹평한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말 2:11b). “이방신의 딸”이라는 특이한 표현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여인”을 의미할 것이다.<sup>28)</sup> 에스라의 개혁은 유대인들의 국제결혼은 재건된 신앙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혼합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6. 이주자의 미래

구약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 상태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주민은 늘 이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살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에 이주한 거주자는 이스라엘과

27) 'etba 'al은 'ittōba 'al과 같은 말로서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요세푸스는 그를 Ithobalus라고 하면서 그가 아스다롯의 제사장 경력을 가졌다고 했다. Flavius Josephus, *Against Apion* I, 18.

28) David J. Clark and Howard A. Hatton, *A Handbook on Malachi*, UBS Handbook Seri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2), 413.

본질적으로 동일한 시민이 된다.

이런 혜택은 역사서에서 이미 암시되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간구가 있다는 것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 기도하거든”(왕상 8:41-43; 대하 6:32-33).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노크리’로서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인이다. 멀리서 온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달라는 간구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도응답의 목적을 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왕상 8:43; 대하 6:33b). 솔로몬은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여 그의 백성이 되도록 간구했다. 솔로몬의 기도는 오순절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에 이미 민족을 초월하는 특징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다민족적인 성격은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이다(창 12:2-3).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오는 것을 포로후기에 삽입된 내용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여기는 솔로몬 성전이 언급되었고 스바 여왕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온 것이 실례가 된다(왕상 10:1-13). 솔로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큰 틀에서 이방인을 수용하고 있다.<sup>29)</sup>

에스겔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환상 가운데서 이주자(게르)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 47:22-23). 이전에는 ‘게르’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었으나 생활터전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한 시민으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영구 거주자 즉 거기서 자녀를 낳고 정착하는 개종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표준, 종교와 생활방식을 받아들이기를 택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본토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sup>30)</sup> 이것은 새 언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과 같다(갈 3:28-29).

### 3. 결론(요약)

구약은 다문화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도 하고 비우호적이기도 하다. 우호적이란 공동체에 동화되는 정도에 달렸는데 그것은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주자가 ‘게르’나 ‘토샤브’일 경우에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법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이스라엘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cf. 례 24:22; 민 15:29).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종교적 관례를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었다. 결혼과 가정생활에서도 이주민은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시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문화 가정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본토인이나 이주민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노크리’

29) 신득일, 『구속사와 구약주석』(서울: CLC, 2017) 124-150.

30) John B. Taylor, *Ezeki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69), 274.

로 분류된다고 할지라도 언약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

## 교의학

##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주석법과 설교론

The Biblical Exegesis and Homiletics  
of Augustine

우병훈

고신대 (신학과 교수)

## 목차

1. 들어가면서 | 181
2.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법 | 182
  - 2.2.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 작품 | 184
  - 2.3.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 185
  - 2.4. 주석적 특징 | 188
3.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론 | 196
  - 3.1. 설교자의 사역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요약 | 196
  - 3.2. 설교자의 정체성과 사역 | 197
  - 3.3. 설교자의 임무 | 199
  - 3.4. 설교자 아우구스티누스 | 201
  - 3.5. 설교자의 청중 | 203
  - 3.6. 설교 내용상의 특징 | 205
  - 3.7. 설교의 수사학적 특징과 설교에 사용한 비유들 | 206
  - 3.8. 삶 속에서 전해지는 설교 | 208
  - 3.9.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예전과 설교 | 210
  - 3.10.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전달법 | 212
4. 나오면서 : 참된 성경주석가와 참된 설교자를 기다리며 | 214